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한·일 평화와 문화교류 상징 되살린다... 조선 시대 외교 사절단 직접 재현할 100명 모집

오는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열리는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2024년에 이어 영암문화관광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이 협업해 공동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왕인박사와 조선통신사 사절단은 한·일 교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상징으로, 이들의 업적과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한·일 관계의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2024년에 이어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조선통신사 행렬이 추진된다.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웅장한 행렬과 수준 높은 전통 취타대의 연주가 어우러져 조선 시대 외교 사절단의 위엄을 생생하게 재현할 예정이다.

조선통신사는 조선 시대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며 양국 간 평화와 문화교류를 이어왔다. 영암군이 백제 문화를 일본에 전한 왕인박사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이번 행렬은 더욱 뜻깊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 간 평화와 우정을 되새기고, 부산과 영암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상호 우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조선통신사 행렬은 조선 후기 실록과 다양

한 사료를 토대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현된다. 정사(正使),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 등 주요 인물을 포함해 약 100여 명 규모로 구성되며, 문인과 무관, 악공, 기수, 수행원 등 각 역할에 맞는 복식과 소품을 세밀하게 반영한다.

신분에 따른 깃발과 문서함 등 세부 요소까지 충실히 재현해 조선 시대 통신사 행렬의 장엄함과 엄숙함을 그대로 담아낼 계획이다. 또한 태평소, 나발, 나각 등 전통 악기로 연주되는 취타 음악이 행렬을 선도하며, 가치를 휘날리는 기수대와 어우러져 장중한 분위기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조선통신사 행렬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왕인문화축제 공식 누리집(www.영암왕인문화축제.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영암문화관광재단 ☎ 061-471-9092)으로 하면 된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축제도시팀 관계자는 “조선통신사 행렬은 단순한 축제 프로그램을 넘어 한·일 간 역사적 유대를 되새기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철저한 고증과 완성도 높은 연출을 통해 역사적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는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암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조선통신사 행렬은 4월 11일(토)에 선보일 예정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주문학과, 시민 문학 감수성 키운다

3~5월 5개 강좌 운영... 성인·청소년 대상 선착순 모집
그림책 제작·노벨수상작 읽기 등 다양한 문학체험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의 문학 감수성과 창작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6년 광주문학관 상반기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3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청소년·성인·작가 지망생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그림책 만들기 ▲노벨 수상작 읽기 ▲시 낭송 ▲시 창작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수강 신청은 5일부터 광주문학관 누리집과 전화 접수를 통해 강좌별로 선착순 모집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운영된다. 다양한 아동도서를 읽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반영해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창작 체험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대상 '노벨을 읽는 청소년들'은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노벨문학상 작품을 함께 읽으며 작품 속에 담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정신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시를 노래하라'는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진행되며, 발성과 호흡 등 시 낭송 기법을 익히고, 시적 감흥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노벨을 읽는 사람들'은 27일부터 격주 금요일 오후 3시 운영된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함께 읽으며 세계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깊이있는 독서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광양광영도서관, '2026년 원어민 그림책방' 운영

3월 10일 개강...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 독서 프로그램

광양광영도서관은 오는 3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2026년 원어민 그림책방」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가 영어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병행하는 영어 특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흥미를 높이고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강좌는 ▲원어민 그림책방 A반 ▲B반(유아 6~7세) ▲C반(초등 1~3학년) 총 3개 반으로 구성되며, 각 반은 기수별 6회씩 3기로 운영돼 총 54회에 걸쳐 진행



작가 지망생과 창작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시 창작 워크숍'은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실전 창작 기법을 배우고 작품 합평, 개별 피드백, 문예지 투고 전략 등을 공유한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https://www.gwangju.go.kr/reserve/)이나 광주문학관(062-613-6195)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학관 누리집(https://www.gwangju.go.kr/gjl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문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창작과 감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책 읽기 좋은 봄을 맞아 주민들의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 속 배움을 지원한다.

북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5개 구립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신용도서관은 '인물로 만나는 한국사', '그림책과 함께하는 과학놀이' 등 초등학생 독서 프로그램을, 성인 대상 '벤드

북구 구립도서관 5곳, 봄맞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다채

6월까지 신용·일곡·양산·운암·중흥 등 5개 도서관별 프로그램 열려

로잉 일러스트, '프랑스 자수' 등 성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곡도서관에서는 '영어그림책 편편엔 톡톡', '인생을 말하는 영어 회화' 등 세대별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총 3개의 강좌가 진행된다.

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 감수성 함양을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양산도

서관에서는 '교양으로 읽는 서양 중세와 르네상스'를, 운암도서관은 '단체 「신곡」, 지옥편 함께 읽기' 등 독서와 문화예술이 접목된 강의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중흥도서관에서는 '알록달록 책놀이 북아트', '책이랑 보드게임으로 놀자', '오늘의 서가' 등 그림책을 활용한 연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이 책

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준비된 프로그램은 북구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일정 및 내용은 각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상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나주문화재단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피아니스트 문지영을 초청해 무료 리사이틀을 개최하며 시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도모한다.

이번 공연은 재단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3월 11일 오후 7시 30분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린다.

문지영은 2014년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과 2015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정상급 연주자로 자리매김

피아니스트 문지영, 나주서 '피아노 리사이틀' 개최

부조니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 3월 11일 한빛홀 무대

했다. 탄탄한 해석과 섬세한 터치, 밀도 있는 음색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공연 1부에서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664'와 모차르트 소나타 'K.310'을 2부에서는 모차르트 'Rondo in a minor,

K.511'과 슈만 'Kreisleriana, Op.16'을 연주한다.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폭넓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예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주/이명열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